

여야 지도부 만난 李 대통령 “이제 제가 ‘乙’ 잘 부탁한다”

국회 시정 연설 전 차담회…“여야, 국민 삶 위해 끝없는 대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사전 환담에는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배석했고,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과 함께 접견실에 들어서, 10여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김병기 직무대행과 김용태 위원장, 김선민 권한대행과 차례로 웃으며 악수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해 “우리끼리도 할까요”라며 이들과도 악수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환담을 주재한 우 의장은 “정치는 길을 내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질서도 급변하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길을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적극 소통하려 노력하고 정치 복원에 애쓰는 모습이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의장님을 뵈게 됐다.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는 말로 화답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길지 않은 시간 국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정부라는 것이 직진하는 집행 기관이다. 그게 바른길인지 점검하고 함께 검토해주는 의회의 기능, 견제와 감시를 적정하게 잘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 “우리 김용태 위원장, 잘 부탁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바람직하지 끊임없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우 의장이 말씀한 대로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길을 만들어내는 데 여러 가지 위협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건 의견이 서로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존중하면서 국민 저력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인정보고서 합의 안되면 표결 수순”

민주 원내대책회의…빠르면 30일 본회의 직권 상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화했다”며 “인정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정보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인 이어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과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정회했고, 이후 대치가 풀리지 않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화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둘러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과 경기 침체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 이재명 정부의 초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하는 내각’의 첫 단추인 총리 임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협조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문회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취조를 위한 검찰의 심문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니를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6억원 장롱’ 발언으로 촉발된 ‘집에 쌓여놓은 6억 돈다발’ 현수막을 ‘허위 의혹’ 제기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문체위원장 김교흥 내정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우 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교흥 문체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내정했다며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 이후 바뀔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한 원내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한 오찬 회동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배석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경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위, 인구 감소·AI 육성 TF 설치키로

국정기획위원회가 분과 내 소규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인구감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과별 TF의 설치 현황을 묻는 말에 “경제1분과에 AI와 관련된 TF가 있다. 경제2분과에도 AI 관련이 있고, 사회분과에는 인구 또는 복지, 이런 식으로 TF가 구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만든 TF”라며

“분과별로 (논의)하다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TF가 설치된 사회1분과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구TF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문제 전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인구부’ 신설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1·2분과는 AI 관련 TF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달성’ 공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경제1분과는 전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 ‘마음AI’를 방문했다. 경제2분과도 같은 날 오후 5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루닛, 퓨리오사 AI, 스튜디오랩 등 기업들과 스타트업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무조정실 및 관련 분과와 함께 ‘규제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고 경제·사회 분야의 폭넓은 규제 개혁 방안 등에 논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입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